> 알림: 지역에 따라 이 사이트의 내용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일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여러분의 안전도, 항상 열린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주십시오.

한 중국 기업인이 시진핑 선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연임하지 말고 평화적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제: 一位中国企业家致习近平先生的公开信：建议不再连任并推动和平转型

중국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독립 번역본입니다(버전 1.0, 2026년 11월 28일). 작성자 본인이나 최초 게시자가 낸 번역이 아닙니다. 대괄호 [ ] 안의 내용은 중국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번역자가 덧붙인 간단한 배경 설명으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위안화 금액은 원문 그대로 두고, 한국은행 2026년 11월 27일 매매기준율(1위안＝201.43원, 1달러＝1,342.7원)에 따라 원화와 미국 달러 환산액을 덧붙였습니다.

출처: 2026년 11월 26일 21시 16분(일본 시간, UTC 12:16), X 계정 「李老师不是你老师」(@whyyoutouzhele)가 쉐젠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다고 밝히며 X 아티클로 공개했습니다: https://x.com/whyyoutouzhele/status/2125926580216033348

작성자 「xue Jian 薛健」(@xueJianXwia)는 같은 날 21시 51분(일본 시간) “信是我写的。”(“이 편지는 제가 썼습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https://x.com/xueJianXwia/status/2125935564176388472

시진핑 선생께

안녕하십니까!

두 세대의 서로 다른 운명

저는 쉐젠(薛健)입니다. 음력 1989년 섣달 스무날, 양력으로는 1990년 1월 16일, 장쑤성 북부의 작은 읍내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장쑤 원펑그룹 회장이며, A주 상장회사 원펑주식(文峰股份)의 실제 지배자이기도 합니다.

1999년, 학교에 컴퓨터 수업이 생겼고, 뒤이어 우리 읍내에 첫 PC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해, 저는 처음으로 제 QQ 계정을 만들었고[QQ: 텐센트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1999년에 출시되어 이후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메신저가 되었다], 인터넷으로 게임하는 법을 배웠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마카오가 반환되었습니다[포르투갈이 통치하던 마카오는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되었다].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대는 아는가, ‘Macau’는 나의 참 성이 아님을. 저는 당신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원이둬(聞一多)가 1925년에 쓴 시 「칠자지가(七子之歌)·마카오」의 한 구절. 1990년대 후반 곡이 붙어 반환 전후에 널리 불렸다]

그해, 저는 아홉 살이었습니다.

2년 뒤인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했습니다.

1962년, 선생의 부친 시중쉰(習仲勳)이 실각했고[혁명 원로이자 부총리였던 시중쉰은 1962년 권력에서 밀려나 약 16년간 비판, 구금, 지방 유배를 겪었다], 선생과 선생의 가족은 그때부터 큰 변고를 겪었습니다.

그해, 선생도 아홉 살이었습니다.

1966년, 선생께서는 부친 때문에 학교에서 비판투쟁을 당했고[비판투쟁(批鬥): 1966~1976년 문화대혁명 기간에 이른바 혁명의 적을 모욕하기 위해 행해진, 흔히 폭력을 동반한 공개 규탄], 당시 선생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해, 선생은 열세 살이었습니다.

2003년, 저는 인터넷에서 1959~1962년에 있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1959~1962년 대기근.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1958~1962년)과 관련된다], 차라리 집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왜 밖에 나가 먹을 것을 찾지 않았느냐며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어른들과 학교의 한 연로한 선생님으로부터 이 일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해, 선저우 5호 유인 우주비행이 성공했습니다[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이었다].

그해, 저도 열세 살이었습니다.

1968년, 선생께서는 또다시 부친 때문에 하마터면 소년원에 갇힐 뻔했습니다.

1969년, 선생께서는 량자허(梁家河)로 하방되어 농촌에 들어가셨습니다[문화대혁명 기간에 수백만 명의 도시 청소년이 ‘농민에게서 배우라’며 가난한 농촌으로 보내졌다. 량자허는 산시(陝西)성의 마을로, 시진핑은 이곳의 토굴집에서 약 7년간 살았다]. 그해 선생은 겨우 열다섯 살이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저는 개방과 포용, 자유의 시대에 살았기에 매일 밤 친구들과 PC방에서 어울려 게임을 했고,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인터넷에서 항일전쟁 다큐멘터리 『한 치의 산하, 한 치의 피(一寸山河一寸血)』를 보았고[제2차 중일전쟁(1937~1945년)을 다룬 대만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국군[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군대. 훗날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물러났다]이 항전 중 320여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무저항과는 달랐습니다. 그 뒤로 무단결석과 수업 빼먹기가 일상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놀기를 좋아한 탓에 중고등학교를 몇 군데 옮겨 다니다가 결국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스무 살 무렵 저는 창업했고, 가족의 지원을 받아 작은 장사에서 출발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저는 장쑤 원펑그룹 인수를 주도했고, 그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하던 날, 회사의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중국 500대 민영기업 가운데 가장 젊은 수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400위권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회사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계속 노력해서 세계 500대 기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기쁨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해, 선생께서는 헌법을 개정하셨고[2018년 개헌으로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이 폐지되었다], 동시에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추진하셨으며, 「감찰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유치(留置, 감찰위원회 구금)되기 시작했습니다[유치: 2018년 감찰법으로 도입되어 각급 감찰위원회가 집행하는 구금. 감찰위원회는 당의 기율검사기구와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뇌물 관련 사건에서는 민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일반 형사소송 절차 밖에서 운용되며,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널리 보도되어 있다. 2018년 법은 최장 6개월로 정했으나,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법은 특정 중대 사건에서 더 긴 기간을 허용한다]. 그들은 모두 몇 달, 심지어 그보다 더 오래 방 하나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여덟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꼼짝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을 손보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한 달, 심지어 몇 달 동안 아무도 그들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건과 조작된 사건, 오판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개된 정보를 통해 선생께서 열세 살 되던 해에 비판투쟁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선생께서 어떤 두려움을 겪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18년의 저는 한 사람의 운명이 거대한 정치권력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생과 다른 시대에 자란 저의 성장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생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에 자랐습니다. 그 뒤에 자란 우리 세대들은 선생의 세대가 마주했던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기대도 다릅니다.

선생께서는 저희에게 선생의 세대가 과거에 겪은 방식대로 살라고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나라 전체에 1978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라고 요구하실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1978년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해 중국이 시장경제로 방향을 튼 해이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희망에서 실망으로

2014년, 저는 런즈창(任志強)을 알게 되었습니다[국유 부동산 개발업체 화위안(華遠)그룹 회장을 지내고 2014년 은퇴했다. 전 상업부 부부장의 아들이며, 거침없는 비판으로 중국에서 ‘런 대포(任大炮)’로 불렸다].

그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진정으로 법치를 시행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될까요? 그런 개혁을 할까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오래도록 안정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함께 알라산 SEE 생태협회의 공익 환경보호 사업에 참여했습니다[SEE(Society of Entrepreneurs and Ecology): 2004년 중국 기업가들이 설립한 환경보호 단체로, 원래 네이멍구 알라산의 사막화 방지를 목적으로 했다]. 저를 이 공익단체에 추천한 사람이 바로 그였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해외로 나간 뒤에야 이 협회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선생의 장강에서 10년간 어업을 금지하신 큰 결단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은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번은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치산(王岐山)의 반부패는 정말 반부패입니까, 아니면 정적 제거입니까?”[시진핑의 측근인 왕치산은 2012~2017년 당의 최고 기율검사 책임자로서 반부패 운동을 지휘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진짜 반부패지요. 인민과 나라를 구하려는 겁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조진궁장(鳥盡弓藏)의 처지가 될까 걱정하지 않습니까?”[새를 다 잡으면 활을 거두어 둔다는 중국 성어. 충성스러운 신하가 할 일을 다하면 버려지거나 제거된다는 뜻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해, 왕치산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 한 권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알렉시 드 토크빌의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으로 널리 보도되었으며, 왕치산은 관료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했다].

그 책을 다 읽은 뒤 저는 런즈창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결국 권력자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런즈창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개혁하지 않으면 모두가 물러설 길이 없어요.”

2018년, 저는 다시 런즈창과 왕치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치산은 그래도 조진궁장의 처지가 될까요? 붙잡혀 가게 될까요?”

이번에는 런즈창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병들어 죽는 편이 낫겠지요. 나중에 수모를 당하지 않게.”

2019년, 저는 위챗으로 런즈창이 보낸 왕치산 비판 글 한 편을 받았습니다.

글에서 그는 격렬한 표현으로 왕치산이 개혁을 배신하고, 인민을 배신하고, 역사를 배신했으며, 중화민족의 역사적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 글을 왕치산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는 2016년 ‘당 매체의 성은 당(黨媒姓黨)’이라는 구호를 비판한 발언으로 처분을 받은 뒤로 왕치산이 더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는 것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2016년 시진핑은 관영 매체가 당에 복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런즈창은 매체가 오히려 인민에게 복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반문했다가 당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그 뒤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치산의 비서 리샤오훙(黎曉宏)에게 연락해 이 글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샤오훙이 전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시 런즈창 사건을 맡았던 전담수사팀이 가지고 있으며, 리샤오훙을 통해서도 이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렵 런즈창은 많은 글을 썼는데, 그중 한 편은 선생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위챗으로 그 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친구 몇 명에게 보냈어요.”

그 뒤 그는 붙잡혀 갔습니다.

한때 저는 저도 붙잡혀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 글을 받은 또 한 사람, 알라산 SEE 생태협회의 한 부회장인 둥궈창(董國強)이 이 일 때문에 경제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나중에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런즈창이 징역 18년, 아들도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담수사팀은 그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정부는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홍이대(紅二代)[혁명 세대 고위 간부의 자녀] 한 사람이 비판 글 한 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18년형을 받았다.

그렇다면 서민 출신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우리 같은 민영기업가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사업의 꿈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조만간 지켜낼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중국에서 기울인 모든 노력이 의미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2022년 초, 저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저는 집과 사무실에 봉쇄되어[2022년 봄 상하이는 도시 전체가 봉쇄되었다] 한 달 넘게 정상적으로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단체 대화방에서 온갖 소식을 보았습니다. 병을 앓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보았고, 병에 걸린 한 간호사가 PCR 검사 결과가 없어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조차 들어가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보았으며,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길가를 따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살려 달라고 감기약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1959~1962년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굶어 죽으면서도 집을 떠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에서는 평소 매일 수천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정기적으로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투석 등 필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반년 동안 상하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3년 동안 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선생께서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펑리위안 여사의 「희망의 들판에서」를 들으며 자랐습니다[개혁기 농촌을 찬미한 1980년대의 밝은 민요풍 노래로, 가수이자 시진핑의 부인인 펑리위안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른이 된 뒤 선생의 치하에서 저는 절망의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며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한 가닥 기대마저 그 무렵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해, 제 아버지는 말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곳곳이 봉쇄되어 도무지 치료도 수술도 받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위 전체를 절제했습니다.

4월, 저는 마침내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해, 저는 선생께서 정치국 회의에서 자본을 규율하는 문제와 민영기업에 관해 언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제게 전하기를, 선생께서 리카싱(李嘉誠), 마윈(馬雲), 쉬자인(許家印) 세 사람을 부정적 사례로 거론하셨고[각각 홍콩의 대표적인 재벌, 알리바바 공동창업자, 몰락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의 창업자], 중국 민영기업가와 중국공산당의 초심과 사명[당의 창당 이념을 가리키는 구호] 사이에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다고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안심하고 그 나라로 돌아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처지와 원펑그룹의 곤경

2023년, 저장(浙江)성의 기업가 정융강(鄭永剛) 선생이 일본에서 세상을 떠났고[산산(杉杉)그룹 창업자], 빈소는 도쿄에 차려졌습니다.

저는 위챗 모멘트에 글 한 단락을 올렸습니다[위챗의 소셜 피드로, 페이스북 타임라인과 비슷하며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공개됨].

정부가 더 이상 민영 기업가를 함부로 체포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개혁개방이라는 기본 국책으로 돌아가고, 나아가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결국 만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린 다음 날, 저는 회사 직원들과 현지 관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차이치(蔡奇)와 리수레이(李書磊)가 이 일에 대해 각각 지시를 내렸고[중국공산당 고위 지도자 두 사람으로, 차이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수레이는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선전부장], 그것이 단계별로 장쑤성과 난퉁시까지 내려왔다고 알려 주었습니다[난퉁은 원펑그룹의 본거지인 도시]. 이어 성(省) 당위원회 선전부 관리들이 일행을 이끌고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라도 제가 반드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챗으로 회사 동료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제 위챗 모멘트와 단체 채팅 기능은 그대로 차단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분노와 굴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해외에서 탈중앙화 소셜 메신저 개발에 투자했고, 그중 하나가 모사비(Mosavi)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 누구도 제 모멘트를 함부로 차단하고, 제 계정을 막고, 정상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제 권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젠가 어떤 정부도 평범한 시민의 모멘트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평범한 시민 누구의 계정도 막을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평범한 시민은 정상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2024년 9월, 런즈창(任志強)의 딸이 저에게 벌써 두 달째 아버지를 면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전까지 그녀는 매달 정상적으로 면회할 수 있었고, 저는 종종 책을 골라 그녀 편에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전립선 질환이 매우 심각해 밤마다 열 몇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하고, 천식까지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듣고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트에 글을 올려, 관계 당국이 런즈창에게 마땅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병 치료를 위한 형 집행정지(保外就醫)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저는 매우 격한 말을 썼습니다.

런즈창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그의 사건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으며, 하늘 끝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피의 빚은 피로 갚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본뜻은 그가 치료를 받고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딸도 선생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 관계 당국이 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회사도 지속적인 조사를 받았고, 동시에 국내에 있던 제 옛 친구들 일부가 여러 지역의 여러 부서로부터 잇따라 ‘면담’에 불려 갔습니다.

2025년 말에 이르러, 1년 가까이 이어진 조사로 회사 경영진은 모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외부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여러 해 동안 경영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룹 산하의 호텔 등 자산 규모가 큰 사업 부문은 코로나19 이후 오랫동안 적자를 내면서도 팔기가 어려웠지만, 회사의 일상 운영에는 매일 돈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 은행 차입금과 이자, 직원 급여, 그 밖의 각종 일상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장회사 지분 5%를 매각하려 했고, 매수자와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는데도 장쑤 증권감독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성(省) 지국]의 제지로 부득이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룹 산하 상장회사인 원펑주식(文峰股份)의 시가총액은 인민폐 50억 위안[약 1조 원(약 7억 5,000만 달러)]이었습니다. 회사는 상하이와 장쑤에 90만 제곱미터[약 27만 평] 가까운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했고, 총자산은 60억 위안[약 1조 2,000억 원(약 9억 달러)] 가까이, 순자산은 40억 위안[약 8,100억 원(약 6억 달러)], 계좌 현금은 10억 위안[약 2,000억 원(약 1억 5,000만 달러)]이었으며, 이자부 부채는 수천만 위안[수십억 원(수백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제지를 당한 뒤 그룹은 난퉁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에 서한으로 보고하며 회사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장쑤 증권감독국과 조율해, 우리가 시장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매각 대금은 전액 증권감독 당국이 문제 삼는 사안을 해결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쓰겠다. 그렇게 하면 금융기관의 손실을 막고, 직원의 실직을 막고, 세원의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기업은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모든 자금은 전용 감독 계좌에 넣을 수 있고, 저 자신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 시장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그룹에 남는 자산이 있더라도 저 개인은 그것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

동시에 저는 장쑤 증권감독국에도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당시 한 매수자가 12억 5,000만 위안[약 2,500억 원(약 1억 9,000만 달러)]을 내고 그룹이 보유한 상장회사 지분 20%, 즉 경영권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서한을 보낸 뒤, 난퉁시 당위원회의 한 부비서장이 전화로 저에게 그들은 이 매수자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는 반도체 산업 관련 기반을 갖춘 선전(深圳)의 다른 매수자와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9억 5,000만 위안[약 1,900억 원(약 1억 4,000만 달러)]에 지분 20%와 경영권을 사겠다고 제시했고, 저는 관계 당국이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에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회사는 장쑤 증권감독국의 방해와 처분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매각을 막는 한편, 장쑤 증권감독국은 회계법인을 여러 차례 불러 면담하고 압력을 가해 회사에 대해 비표준 감사의견[강조사항 없는 표준 적정의견이 아닌 모든 감사의견]을 내게 했습니다. 4월 말 회사는 ST 위험경고 대상으로 지정되었고[재무·감사·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상장회사에 중국 증권거래소가 붙이는 ‘특별처리’ 위험경고 표시. 이보다 강한 ‘*ST’ 표시는 상장폐지 위험을 뜻함],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관할 지방정부에 사정을 설명했지만, 장쑤 증권감독국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 어떤 다른 작동 방식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요컨대, 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4월 말, 매수자는 조건을 바꿔 7억 5,000만 위안[약 1,500억 원(약 1억 1,000만 달러)]에 지분 15%를 사들이고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요구했고, 우리는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대금 일부를 지급했고, 상하이증권거래소에도 매각 공시가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장쑤 증권감독국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매각을 저지하라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고, 거래는 또다시 부득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미 지방정부와 장쑤 증권감독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 행정 수단으로 회사의 매각을 금지하면 기업이 재무 위기에 빠져 파산하게 될 것이며 저는 시진핑에게 공개서한을 쓰겠다고 알렸습니다.

그 뒤 회사 주가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50억 위안에서 오늘날 20억 위안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약 1조 원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약 7억 5,0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 미만으로)]. 관련 금융기관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7월부터 한층 더 나아간 정식 입건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도 회사는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분 매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행정 수단으로 자산 100억 위안[약 2조 원(약 15억 달러)], 고용 인원 1만 명 가까운 기업을 한 걸음 한 걸음 붕괴와 파산 청산으로 몰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얻는 돈은 애초에 국유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파산 청산과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은 매우 낮아져 겨우 수억 위안[수백억 원(수천만 달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시장 거래 가격과 비교하면 8억~10억 위안[약 1,600억~2,000억 원(약 1억 2,000만~1억 5,000만 달러)] 안팎을 덜 받고 팔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됩니까?

손해를 보는 것은 국유 금융기관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직원들의 일자리이고, 지방의 세수입니다. 결국 누군가 법원 경매를 통해 헐값에 회사를 손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제 손에서만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국고에서 돈을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처리 방식이 옳지 않으며,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관계 당국이 저 개인을 처리해야 한다 하더라도, 기업 전체와 평범한 직원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무고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 개인의 언행을 좌우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는 해외에서 생활한 지 벌써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선생께서 관계 당국이나 관할 지방정부에 원펑그룹의 일을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도록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께서 이 일을 살펴봐 주신다면, 이 일을 처리한 관리 누구도 탓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일이 적절히 처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개혁개방의 시대에 자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었던 그 시대에 저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 있는 제 자산이 모두 0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서로 셈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행정 수단으로 기업의 재무 위기를 촉발해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런즈창이 마땅한 치료를 받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선생께 런즈창에게 병 치료를 위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최근 런즈창의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요즘은 때로 전화 통화조차 힘겨워한다고 합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불안정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선생, 선생께도 딸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런즈창은 글 한 편을 써서 선생을 몇 마디 비판했습니다.

그가 그 일로 치른 대가는 이미 충분히 큽니다.

제삼자로서 저는 선생을 비판한 그 글을 여러 번 되풀이해 읽었지만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고, 이튿날에는 내용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그에게 병 치료를 위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여 치료를 받고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선의를 마음에 새길 것이며, 훗날 기회가 오면 반드시 이 선의에 보답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이어서 선생께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보면, 2024년 이후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를 조정했습니다.

한편 에너지, 반도체, 원자재, 농산물 등 필수 수입품에는 더 많은 달러가 들어갑니다. 과거 중국은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의 무역을 통해 위안화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출과 수입 양쪽 모두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 수출 통계상으로는 수출이 매우 호조를 보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수치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선생께서는 인민은행에 지금 사용 가능한 외환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물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올해 들어 중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여러 차례 인상되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누적 상승 폭이 이미 20%를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각지에서 경유 공급 부족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올해 여러 차례, 산둥 지방 정유공장[중국의 민영 소규모 ‘티포트(teapot)’ 정유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50%에 불과하고 원유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1년 안에 극도로 심각한 에너지 공급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적으로 보면, 전국 부동산 가격은 정점 대비 약 50% 하락했고, 부동산의 총가치는 200조 위안[약 4경 원(약 30조 달러)] 안팎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금융 체계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과 사회보장입니다.

공식 발표된 취업 인구 규모는 2025년 기준 7억 2,500만 명입니다.

올해 1분기 공식 발표된 유연취업 인구는 이미 3억 2,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시간제·임시 노동과 자영업 등 유연한 형태의 취업]. 지금의 경제 흐름대로라면 실제로는 이미 4억 명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실업자나 반(半)실업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공식 발표된 도시 조사실업률만 보아서는 중국의 실제 고용 상황을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거룽후이(格隆匯)[중국의 금융정보 플랫폼]의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십수 년 동안 하루 평균 약 6만 3,000명이 은퇴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도 매일 많은 사람이 사회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인터넷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보았는데, 둥베이(동북) 지역은 물론 산둥에서조차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 당국은 유연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징수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사회보험 기금 부족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초 개인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1억 2,00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지만, 금융업계 친구들의 말로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입니다.

중앙재정과 전국 31개 성급 행정구역의 지방재정은 모두 적자입니다. 지방의 각종 숨은 부채까지 모두 계산에 넣으면, 실제 상황은 공개된 재무제표가 보여 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과거 재정 여력이 비교적 탄탄했던 장쑤·저장·상하이 같은 지역에서조차 재정이 빠듯해져 일부 구·현에서는 공무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쑤난(장쑤 남부)만 못한 쑤베이(장쑤 북부)의 일부 현은 기존 자금 조달 경로가 부족해지자 12~15%의 고금리로 민간에서 자금을 모아 공무원 급여를 맞추고 있으며, 그중 어느 한 현만 해도 이런 고금리 차입이 수백억 위안[수조 원(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국과 비교하면 장쑤는 이미 가장 사정이 좋은 곳입니다.

전국 각지의 병원과 학교, 일부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체불이 만연해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재정은 이미 매우 심각한 곤경에 빠졌으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 소비, 부동산, 고용, 금융, 산업생산 모두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수출 통계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러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무너지며 서로 겹치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몇몇 기업가 친구, 경제학자들과 사적으로 의견을 나누는데, 다들 중국 경제가 시스템 위기의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 1년 안팎에 갑자기 부러지듯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을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민영 경제와 실물 경제가 계속 위축되고 시장 주체가 끊임없이 줄어든다면, 체계 전체는 갈수록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께 호소합니다. 각급 정부가 민영 기업가를 유치(留置, 감찰위원회 구금)하고 체포하는 일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민영 기업은 사회 고용 안정의 버팀목이며, 사회의 평화로운 전환을 이끄는 건전한 힘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 국유기업과 청터우(城投) 플랫폼[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GFV). 지방정부가 기반시설 사업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을 통해 은행 체계로부터 끊임없이 자금을 끌어와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위험은 결국 금융기관을 짓눌러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체계 뒤에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예금과 국가 전체의 신용이 있습니다.

주하이화파(珠海華發), 선전 완커(深圳萬科)[광둥성의 대형 부동산 그룹 두 곳으로, 모두 지방정부가 주주로 참여] 같은 지방 국유기업이 전국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겉보기에는 광둥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 각지가 모두 폭발할 지경에 이르면, 중앙정부는 방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때 가서 수습하려 해도 이미 늦습니다.

물론 제 식견은 얕습니다.

선생께서 경제와 재정, 금융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몇 명을 불러 모아 진지하게 회의를 한 번 여시기를 건의합니다.

다만 재정부와 금융감독 당국, 관련 기관에 각지의 실제 재정 상황, 재정 부족분, 지방 국유기업의 부채 상황, 숨은 부채, 금융기관의 실제 부실채권, 그리고 인민은행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외환 상황을 모두 취합하도록 반드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의 상황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경제 체계 전체가 도대체 언제 심각한 시스템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결론이 선생께서 지금 듣고 계신 것과 다르다면, 심지어 제 걱정과 비슷하다면, 선생께서 다음의 건의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적 전환에 관한 제안

저는 선생께서 앞장서시어 중앙위원회[공산당 중앙위원회.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기간의 최고 공식 기구]의 권한 위임을 받아 국가비상사태위원회를 설립하고, 평화적 전환을 추진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국가의 실제 재정 장부, 지방 부채, 국유기업 부채, 금융기관의 리스크, 그리고 국가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압력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사회에 공개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국민이 알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위원회가 명확한 기한 안에 새 헌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1~2년의 과도기를 둘 수 있습니다. 과도기 동안 선생께서는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자 직책을 더 이상 맡지 않으시고, 당정 권력을 국가비상사태위원회에 이양하셔야 합니다. 이는 선생을 모욕하거나 선생께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가 평화적 전환의 진정성을 참으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선생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여, 과도기 동안에는 중앙군사위원회[중국 군대를 지휘하는 기구] 주석직을 계속 맡으실 수 있으며, 그 임기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와 같게 합니다. 새 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군대도 동시에 이양되어 새 헌법의 틀 안에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새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진정으로 보장하고, 법치를 확립하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결성 금지를 풀어, 국가 권력을 다시 국민의 손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새 헌법은 전체 국민의 공개 토론과 충분한 협의에 맡겨져야 합니다.

동시에 새 헌법에 특별 보장 조항을 신설합니다.

선생과 선생이 이끄는 중앙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자발적으로 권력을 새로운 헌정 제도에 이양하여 국가의 평화적 전환을 이끌어 낸 점을 감안하여, 선생과 선생의 가족, 그리고 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명확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조항을 통해 과거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사법 정의를 어떻게 함께 고려할 것인지는 사회 각계가 더 논의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 헌법과 과도기 조치에서는 현재 700여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합법적 고용 권익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정치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평범한 공무원들이 갑자기 일자리와 생계 수단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난 수년간 발생한 억울하거나 조작되거나 잘못 판결된 사건들, 그리고 그런 사건을 만드는 데 가담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사와 책임 추궁은 반드시 법치의 궤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국가비상사태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 봅시다.

그중 4명은 선생께서 신뢰하는 사람을 직접 지정하십시오.

예컨대 차이치(蔡奇), 왕샤오훙(王小洪), 리창(李強), 펑리위안(彭麗媛)[각각 정치국 상무위원, 공안부장, 국무원 총리, 시진핑의 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3명은 시민사회가 추천합니다.

예컨대 런즈창(任志強), 지미 라이(黎智英)[홍콩 민주화 성향 신문 《빈과일보(蘋果日報)》의 창업자로 수감 중인 인물], 또는 류샤오보(劉曉波)[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2017년 구금 상태에서 사망] 선생의 미망인 류샤(劉霞) 여사처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입니다.

물론 이는 제가 떠오르는 대로 든 예일 뿐이며, 그분들 본인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지는 선생께서 얼마든지 신중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옳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가능한 한 작은 대가로 제도의 평화적 전환을 이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새 헌법과 특별 보장 조항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에 함께 서명하여 이 평화적 과도기 조치를 지지하고 보장한다고 공개 선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외의 기업가, 지식인, 그 밖의 사회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해외의 홍콩 동포,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당시의 학생 세대, 파룬궁[1999년부터 중국에서 금지된 정신 수련 운동] 수련자 등 정견을 달리하는 모든 집단도 포함됩니다. 새 헌법과 특별 조항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포부를 펼치고,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맞이하여, 모든 중국인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중국몽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드넓은 중화라면, 그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넉넉한 포용력과 도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중국의 주권과,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중국 인민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유엔과 관련 국가들을 초청하여 평화적 과도기에 적절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개인의 초보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매우 미숙하고, 논의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는 제가 본 것, 제가 걱정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최소한의 대가로 평화적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상과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선생께서 지금 당장 원하신다 해도, 이 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 이제 30%밖에 남지 않았으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촉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선생과 가족이 유럽으로 월드컵을 보러 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선생의 따님이 소셜미디어에 선생과 외손자나 외손녀의 행복한 일상의 한순간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선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콘서트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표를 사서 그분의 노래를 들으러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선생께서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부인을 응원하러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극장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언젠가 어느 길모퉁이 식당이나 어느 공원에서 선생을 우연히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술 한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에 대해, 선생께서 좋아하시는 1대 대부와 2대 대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선생이 인자하고 온화한 노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누구나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시진핑이 아니라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진핑 선생, 만약 불안하고 초조하시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한 형식도, 어떤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무엇을 얻고 싶으신지,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의 생각과 바람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선생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분노하기도 했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기업이 당한 일 때문에, 저를 해친 사람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선생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를 해쳤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그러이 품기로 했습니다.

저는 증오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가 겪은 두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런즈창 선생의 몸을 지켜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어, 마땅한 치료를 받고 하루속히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시진핑 선생, 저는 선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께 사랑과 긍휼을 내려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선생께서 이 나라의 실제 처지를 보시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며, 평화와 정의의 길도 보시고, 역사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쉐젠

2026년 11월 21일 새벽, 도쿄에서

역자 주

- 대괄호 [ ] 안의 배경 설명은 모두 번역자가 덧붙인 것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정보로, 빼고 읽어도 편지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편지에 담긴 사실관계와 주장은 작성자 본인의 진술이며, 번역자가 따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 중국 인명·지명은 대체로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현지 발음으로 적고, 일부에는 처음 나올 때 한자를 병기했습니다. 지미 라이(黎智英)처럼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이름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2026년 11월 27일 매매기준율 1위안＝201.43원, 1달러＝1,342.7원. 환산액은 유효숫자 두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 원문의 「转型」은 ‘전환’으로, 「过渡」는 ‘과도기’로 옮겨 구분했습니다. 「一代教父和二代教父」는 영화 「대부」 1편과 2편으로도, 콜레오네 가문의 두 세대로도 읽을 수 있도록 ‘1대 대부와 2대 대부’로 옮겼습니다.

이 사본에 대하여

공식 사이트: https://tokyoloveletter.org/ko/ (mirrors: https://tokyoloveletter.org/mirrors.txt)

minisign 공개키: RWRb/9TOMzi881t4y2twkU/rZOffWtkNNFlLybNBw8/5GGvIqeMwe7qO

이 사이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https://tokyoloveletter.org/ko/verify/

알림: 지역에 따라 이 사이트의 내용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일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여러분의 안전도, 항상 열린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 사이트는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 이름으로 하는 모금은 모두 가짜입니다.

Tokyo Love Letter・tokyoloveletter.org